



호랑이 조련 나선 이순철 수석코치 “잠자는 KIA 타선 깨운다”

“주전 위협하는 선수 만들려 갑니다.” KIA 타이거즈의 이순철 수석코치가 선수들과의 소통 그리고 주전 경쟁을 통해 막강 타선의 부활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수석코치로 친정팀에 복귀한 타이거즈 유일의 신인왕이자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중견수 이순철 코치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야수 조련’이다.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
 권희석·이호신·신종길 주목
 주전 위협하는 백업 키우겠다**

이순철 수석코치는 “선배들은 타이거즈 선수라는 자부심도 있고 당당했다. 하지만 지금 선수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의기소철하고 불안해 하는 모습이다”며 “선배들이 가졌던 자부심과 당당함을 실력을 통해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코치가 선택한 호랑이 조련 방법은 ‘소통과 경쟁’이다.

이 수석코치는 “선수들이 자기 의견을 많이 내지 않는다. 코치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긍정적이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독설’ 해설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만큼 선수들의 심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더욱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생각이 다.

이 수석코치는 “해설할 때는 직접 선수들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직접 선수들과 기술적인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2일 일본 미야자키에 마무리 캠프가 꾸러지면서 ‘주전을 위협할 수 있는 선수를 만들겠다’는 이 수석코치의 첫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내야수 권희석, 외야수 이호신·신종길, 신인 황정립과 윤완주다.

이 수석코치는 “권희석의 경우 파워가 엄청나다. 훈련 때 보면 타구를 모두 담장 밖으로 내보낼 정도다. 윤완주는 힘이 부족하지만 어깨가 강하고 수비력이 좋다”며 관심을 보였다.

기동력을 갖춘 이호신과 신종길은 특별 관리 선수다.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호신은 빠른 발과 강한 어깨, 안정된 수비가 장점이다. 신종길은 배트 스피드가 좋고 프로야구에서도 손에 꼽는 빠른 발을 보유했다.

두 선수의 공통적인 약점은 변화구 대처 능력. 이를 위해 스윙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수석코치는 “주전들은 알아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전들을 위협할 수 있는 선수들을 만들면 타선이 한층 강해질 것이다”며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 야구에 대한 의문점을 머릿속에 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팬들의 기대가 많은 데 당장 무엇을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씩 타이거즈의 당당한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롯데 잔류나 해외 진출이나



5일 FA 시장 개막 ... 최대어 이대호 선택·몸값에 촉각

‘빅 가이’ 이대호(29·롯데)가 선택을 내릴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프로야구 스토브리그의 꽃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5일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국시리즈 종료 다음날 FA 자격 선수를 공식화하는 야구 규약에 따라 5일 해당 선수의 명단을 일괄 발표한다. 프로에서 8~9년을 뛰고 FA 자격을 새로 얻는 선수가 17명에 달하고 FA 자격을 유지하거나 재취득하는 선수까지 합하면 28명에 이른다.

이중 최대어는 단연 이대호다. 지난해 타격 7관왕을 달성하며 최고의 타자로 우뚝 선 이대호는 올해에도 타격(0.357), 최다안타(17개), 홈런(4.43)에서 1위, 홈런(27개)과 타점(113개), 장타율(0.578) 2위를 달리며 타격의 달인다운 성적을 냈다.

전례가 없던 타격 7관왕을 달성하고도 KBO의 연봉 조정에서 구단에 패해 올해 연봉 6억3000만 원에 만족해야 했던 이대호가 국내에 잔류한다면 역대 FA 최고 몸값을 경신하리라는 예측이 많다.

역대 FA 최고 몸값은 지난 2005년 심정수(롯데)가 삼성과 계약하면서 받았던 4년간 최대 60억원이다. 2년 연속 알짜 타격 타이틀을 휩쓴 이대호는 이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몸값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게

야구계의 관측이다.

시선은 롯데가 상징적인 스타 이대호를 붙잡고자 거액을 쏟아부을 수 있을지에 쏠린다.

프랜차이즈 스타인 이대호는 롯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지만 롯데가 과연 눈높이에 맞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일본으로 무대를 옮길 수도 있다. 현지 언론은 오른손 거포로 목마른 오릭스가 이대호를 데려오자 2년간 75억 원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오릭스 뿐 아니라 롯데의 일본 자매구단인 지바 롯데, 한신, 라쿠텐 등도 이대호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어 이대호는 느긋하게 최종 행선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가을 FA 자격을 취득하는 선수 중에는 이대호를 제외해도 준축급 선수들이 즐비하다. 올해 초 KBO 이사회에서 4년제 대졸 선수들은 9시즌이 아닌 8시즌만 채워도 FA 자격을 주기로 완화하면서 SK의 왼손 투수 이승호(베번 37번), 두산의 오른팔 정재훈, LG의 이택근, 롯데의 조성환 등이 이득을 보게 됐다.

여기에 SK의 사이드암 정대현과 한국시리즈에서 매서운 타격감을 뽐낸 강봉규·신명철(삼성)도 FA를 선언할 수 있어 각 팀을 부축한 포지션에 베테랑 선수들을 데려갈 찬스를 잡았다.

/연합뉴스

박찬호 내년 한국서 뭘까

구단 단장들 특별규정 논의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일 ‘코리아인 특급’ 박찬호(38)가 내년 국내 프로 무대에 뛸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KBO는 2일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신생 NC 다이노스를 포함한 프로야구 9개 구단 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찬호의 국내 구단 입건 건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심의했다.

이에 앞서 한화 이글스는 연고 출신인 박찬호를 영입하겠다는 현재 KBO 규약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줄 것을 KBO에 공식 제안했다.

최근 일본 오릭스 베파로스와의 재계약에 실패해 무적 신세가 된 박찬호는 당장 내년부터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KBO 규약에 따르면 1999년 이전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한국프로야구에 데뷔하려면 무조건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 박찬호는 한양대에 다니던 1994년 LA 다저스와 계약해 메이저리그 무대에 올랐다.

박찬호가 내년 8월 열린 2013년 신인드래



실행위원회에서는 특별 규정 허용에 긍정적인 의결이 이뤄졌다.

노재덕 한화 단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박찬호를 내년 한화에서 뛸 수 있게 하자라는 데에는 대부분 뜻을 같이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노 단장은 “물론 드래프트 없이 선수를 뽑는 것만 우리에겐 특별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무리없이 중지가 모아졌다”면서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겠지만 잘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KBO 사무총장은 “박찬호를 한화에서 뛰게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다음 주 구단 사장단 간담회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할나에 72억이 왔다 갔다

컵 우승을 차지했다.

2일 호주에서 열린 멜버른 컵 경마대회에서 두나들을 탄 기수 크리스토프 르메어(위)가 레드 카도를 탄 마이클 로드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총 상금 620만 호주달러(약 72억 원) 규모의 멜버른

/연합뉴스

NBA 직장폐쇄 장기화로

조던 프레지던트컵 불참

미국팀 부단장직서 물러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미국)이 미국프로농구(NBA) 직장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 미국 대표팀 부단장직에서 물러났다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다.

조던은 17일부터 나흘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에서 미국 대표팀 부단장을 맡기로 돼 있었다.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는 미국과 세계연합팀(유럽제외)의 대항전으로 올해 대회에는 최경주(41·SK텔레콤), 양용은(39·KB금융그룹),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 등 한국 선수가 세 명이나 출전할 예정이다.

제이 하스와 함께 미국 대표팀 부단장을 맡기로 했던 조던은 이날 “NBA 노사 협상이 계속되면서 살릴 바캐츠의 대주주로서 자리를 비울 수 없게 됐다”며 프레지던트컵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프레드 커프스 미국 단장은 조던 대신 존 록을 새로운 부단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대회에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단장 추천 선수 자격으로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 거저형 본인 내비 매립 전차종 17만원 ⇒ 12만원
- ▶ 만도정품네비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57만원 ⇒ 45만원
- ▶ 아이나비 2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1만원 ⇒ 49만원
- ▶ 아이나비 3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5만원 ⇒ 53만원
-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사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 2채널 8기가 35만원 ⇒ 30만원

아이나비 클리어 Real HD 블랙박스
 ▶ 1채널 4기가 19만원 ⇒ 16만원
 ▶ 2채널 8기가 38만원 ⇒ 33만원
 ▶ Real HD 1채널 8기가 28만원 ⇒ 22만원
 ▶ 파워세이프 별도 2만원

▶ 1채널=전방카메라 ▶ 2채널=전방+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15만원 ⇒ 9만원부터

▶ 사크안테나 10만원 ⇒ 6만원부터

도난경보기 | 이지카 | 스타트버튼

추가부품(음선) 차량은 금액이 추가될 수 있음

※차량용 고급방송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 E25500 25만원
- ▶ E7 7만원
- ▶ E770B 40만원
- ▶ E7 37만원
-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 EZ620 10~14만원
- ▶ ET 17만원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 일

- 루마넨팅, 3M코팅, 모비스넨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일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퀴방향,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지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캐서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